

7순 까막눈 학원공부 한글깨쳐 신바람

동네 간판 쓰기연습 낙달새 공책 20권

새롭게
시작하다

②

김갑용 할머니

올해 70살인 김갑용 할머니는 요즘 진짜 살맛이 난다. 매일 밤 12시 넘어까지 밥상을 책상으로 삼아 서투른 한글쓰기 연습을 하는 김 할머니는 이제 자신도 까막눈이 아니라는 사실이 생각할수록 신기하기만 하다.

낙달 전인 지난 2월24일 아침 7시, 김 할머니는 난생 처음으로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다.

학교는 고려학원에서 여는 '무료한글교실'.

"학교가는 소년들아 / 너희 기쁨 잊지마라 / 새벽바람 찬바람에..." 어린시절 학교가던 동네친구들이 목청껏 씩씩하게 불러대던 노래를 속으로 크게 외쳐

부르며 김 할머니는 혼자 감격에 젖어 눈물을 흘렸다.

22년 충남 온양군 신창면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예닐곱살 때부터 '밭 매고 보리방아 찧고 목화 따는' 온갖 일을 너무 잘해 동네사람들도 어머니도 "너는 일 잘하는 사람"이라 했고, 자신도 '나는 일해야 하는 사람'으로만 생각했다.

"큰 애가 국민학교에 들어갔는데 엄마라고 뭘 알아야 한자라도 가르쳐주지요. 버스를 마음대로 탈 수 있습니까. 은행 불일도 제대로 못 보고, 자식 친구들이 전화해서 매모를 부탁할 때면 난감하기 짝이 없었어요." 김 할머니



칭얼대는 손자를 토닥거리며 밤늦게까지 새로 시작한 한글공부를 하는 김갑용 할머니는 하루종일 "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 시작하지 못했을까"하고 아쉬워한다.

〈임완호 기자〉

가 털어 놓는 '까막눈 칠십평생'의 한은 절절하다.

일곱남매를 둔 김 할머니는 못 배운 한을 풀기 위해 셋째딸의 소개로 지난해 10월 한글교실 문을 처음 두드렸다. 그때만 해도 '이 나이에 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랴'는 마음이 앞섰었다.

"그런데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더라고요. 왜 이 좋은 걸 진작 시작 못했을까 후회도 많이 했지요. 여든살이 넘은 할머니들도 하루도 안 빠지고 출석하고, 쉬는 시간에도 한자라도 더 써보려

고 자리를 뜨지 않는 다른 할머니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."

김 할머니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계속되는 수업 뒤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뿐 아니라 따로 국민학교 교과서를 구입해 밤늦게까지 쓰기연습을 계속했다.

할머니 공책에는 받아쓰기뿐 아니라 '삼거리공판장' '세일은행' '국민은행' 등 동네 건물 간판 이름도 쓰여 있고, '공부합시다' '재미있습니다' 등 할머니의 생각도 담겨 있다. 길거리를 다니면서 간판을 읽을 수 있게 되자 기억했다가 집에 와 혼자 공책에 써보는 연습까지 한 것이다. 할머니가 낙달간 쓴 공책만도 20권이 넘었고 연필도 벌써 두다스나 썼다.

지난 19일 '무료한글교실' 졸업식에서 반장으로 졸업답사까지 읽은 김 할머니는 앞으로 국민학교, 중·고등학교 과정까지 계속 공부할 꿈을 갖고 있다.

"공부해서 뭐가 되겠단 욕심을 가질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들어버린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. 그래도 죽을 때까지 계속 하고 싶습니다."

한글도 모르는 시어머니라는 사실이 알려질까 부끄러워 머느리에게 공부하러 다닌다는 사실을 숨겨온 김 할머니는 19일 졸업식장에 꽃다발을 들고 찾아온 머느리와 아들·딸들에게 둘러싸여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.

〈김미경 기자〉